6강 마음의 위상학1 : 이드로부터 자아로

1. 이드

이드(Id)’는 영국의 정신분석가들이 ‘das Es’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영어가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차용하여 쓰게 된 말이다. 사실 ‘das Es’를 영어로 직접 옮기면, ‘the It’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 어법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드’라는 영어표현 대신에 ‘das Es’를 ‘거시기’나 ‘그것’으로 번역하곤 한다.

2. 이드와 자아와의 관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우리의 두 가정은 우리 지식의 이 종착점 내지는 출발점에서 시작된다. 첫째 가정은 위치를 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정신생활은 다수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적 연장의 속성을 갖는 한 기관의 기능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관을 망원경이나 현미경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구축하는 것은 이미 비슷한 것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개별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정신적 장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정신적 지역 또는 기관의 가장 오래된 것을 '이드das Es=Id'라 부른다. 그 내용은 유전되어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확정된 모두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신체 조직에 기인하는 본능인데, 이 본능은 그 형태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드에서 정신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실재 외부 세계의 영향 하에서 이드의 한 부분이 특별히 발전한다. 원래 자극의 수용을 위한 기관들과 자극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가진 외피층이었던 것이 이드와 외부 세계를 매개하는 하나의 특수한 조직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생활 중 이 영역에 자아 'das Ich=ego'라는 이름을 붙인다. 자아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자아는 감각 지각과 근육 활동 간의 미리 형성된 관계로 인해 자의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보존의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외부를 향해서는 자극을 배우고, 그에 대한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과도한 자극을 (도피를 통해) 피하고, 적당한 자극에 (적응에 의해) 대응하고, 마침내 외부 세계를 합목적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배움으로써 이 과제를 수행한다. 내부를 향해서는 본능의 욕구들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이드에 대립하여 이 요구들의 충족이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외부 세계에서의 유리한 시간과 환경으로 이 충족을 지연시키거나 그것의 흥분을 억제함으로써 이 과제를 수행한다.

자아의 활동은 자아 속에 존재하거나 자아 속으로 들어온 자극의 긴장에 대한 주목에 의해 인도된다. 일반적으로 이 긴장의 증가가 불쾌로, 그것의 감소가 쾌락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쾌락과 불쾌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 자극 긴장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그것의 변화 리듬에서의 어떤 감정일 것이다. 자아는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려 한다. 불쾌 증가가 기대되고 예견되는 경우 자아는 '불안 신호'로 대답한다. 그것의 동인이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오든 그것을 '위험'이라 한다.『정신분석학 개요』(1940)

-쾌락원리와 현실원리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프로이트는 마침내 마음의 내적 구조의 비밀을 엿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드-자아-초자아로 구성된 마음의 위상학(topology)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드와 자아의 관계이다.

-이드가 '쾌락원리'에 따르는 정신의 장소라면, 자아는 '현실원리'를 상징하는 정신의 장소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이드가 흔히 생각하듯이 생물적인 본능이나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어떤 지역을 가리킨다.

-이드라는 장소를 통해서 생물적인 본능이 정신적으로 표현된다.

3. 자아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자아란 내적인 욕망과 외부의 세계를 매개하는 정신의 어떤 지역을 말한다.

-자아는 자신 속으로 밀려들어오는 자극의 긴장에 주목하는 활동을 한다.

4. 자아를 침입하는 두 가지 자극

-자아에 침입하는 자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 하나는 내적인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자극이다.

-자아는 긴장의 증가를 불쾌로, 반대로 긴장의 감소를 쾌락으로 경험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아의 쾌락과 불쾌는 '쾌락원리'라기보다는 '현실원리'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